

# 해방촌, 그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들 이야기

심수림

우리마을기록단, 구.해방촌마을기록단 공동대표

## 프롤로그: 서울 해방촌에서 청주 해방촌으로

저는 서울 용산 해방촌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기록해온 지역 연구자이자 시민 기록가입니다. 해방촌은 제게 단 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이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던 삶의 터전이자 함께 기록을 이어 온 일상의 무대입니다. 그런 시간들 중에, 청주 기록가들의 초대로 청주의 해방촌을 찾게 되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던 그 마을을 탐방하고 돌아온 뒤, 저는 서울과 청주 두 해방촌을 나란히 떠올리며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지닌 오늘의 의미와 우리가 이어가는 기록 활동의 가치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1. '해방촌'과 서울 용산 해방촌: 시대의 흔적과 변화의 물결

'해방촌'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적인 순간마다 형성된 특별한 마을들을 지칭합니다. 1945년 해방 후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들, 6.25 전쟁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그리고 전후 산업화 시대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이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이죠. 이 마을들은 대부분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주거지로서,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애환과 강인한 생존력, 그리고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서울 용산 해방촌(법정동명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은 남산의 서남부 구릉지에 위치한 경사지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사격장 및 조선신궁 부지에 1945년부터 월남민들이 비어있던 일본군 육군 관사를 집단 점거하며 정착이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북한 평안북도 선천 지역 출신들이 집단 이주하여 선천군민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연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선천 지역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포교를 시작한 곳이고, 그 세력 또한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많은 광산과 해상 무역이 활발해 자산가들이 많았던 이유로 해방직후 북한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공산주의에 반발하여 월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47년 사회부장관과 교섭하여 지금의 해방촌 자리에 임시천막 40개를 얻어 이주했다고 하는데, 이 때 이주한 사람들이 약 400여가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지연공동체'이면서 '종교공동체'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해방촌은 도시의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서 공장 노동자 등 도시 빈민 계층의 중요한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 해방촌은 남산길 아름다운 일몰 명소와 곳곳에 숨은 맛집들로도 유명합니다. 1967년부터 지금의 현대화된 모습을 갖춘 해방촌 오거리의 신흥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힙'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일제 잔재였던 경성호국신사로 향하는108계단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경사형 승강기로 덧 입혀졌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이국적인 생활문화가 형성되었고, 'HBC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용산 해방촌의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문화적 활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원주민과 영세 상인의 비자발적 이주를 초래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활성화'와 기존 공동체의 '보존' 사이의 본질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 2. 청주 해방촌, 그리고 기록의 의미: 서울 용산 해방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번 청주 방문은 제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주에는 수동, 영운동, 운천동 세 곳의 해방촌이 있다고 합니다. 수동은 이미 벽화마을로 조성되어, 주거지로서의 삶의 흔적들은 오래된 벽 위에, 새로운 벽화가 비탈길은 깔끔한 보도블럭으로 정비되어 주변 상권과 더불어 그 외형과 마을 생태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운천동과 영운동은 어딘가 닮아 있으면서도 서울 해방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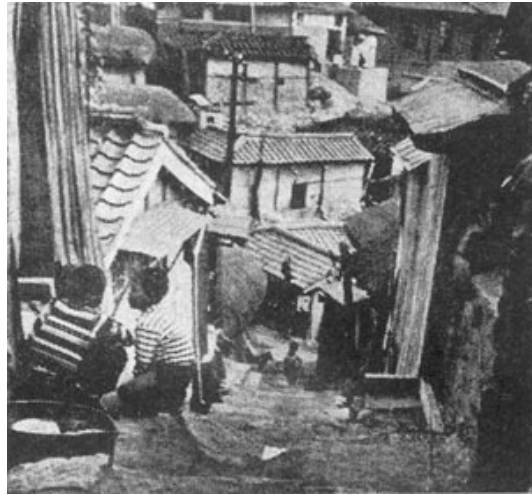
서울 용산 해방촌은 남산의 서남부 구릉지에 위치하며, 일제강점기 일본군 사격장 및 신사 부지에 월남민들이 정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청주 운천동과 영운동 피난민 수용소는 무심천 변에 자리 잡는 등, 피난민들이 급히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 도시 외곽의 구릉지나 하천 변과 같은 장소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서울 용산 해방촌은 남산 기슭과 일본 신사 자리를 선점한 선천군민회, 인근 미군기지에서 나온 씨레이션 박스로 만들어진 집들의 원형, 신흥시장, 종교 공동체, 학교 등 많은 공간들이 남아 있어 이들을 통해 해방촌이라는 용산2가동의 역사를 개별 공간의 역사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의 물리적 기반과 공동체 조직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그곳에 살았던 이들의 삶의 흔적을 풍성하게 기록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이와 달리 청주 해방촌은 변화한 도시 조직 속에 점처럼 주거의 한 조각이 남겨져 있는 정도였습니다. 세월을 더하며 생존을 위한 보호막들이 계속해서 더해진 주거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천동에는 4살에 포대기에 업혀 이곳으로 와 혼자 사시는 분이 유일한 선주민이라고 합니다. 영운동은 7가구 정도가 산다고 하지만 모두 비어있는 채 남겨져 있다는 점에서, 기록가가 들을 수 있는 구술 증언 또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해방촌이, 어떤 과정으로 어



[서울 용산 해방촌 선천군민회 부지 위치]



- 좌 [서울 용산 해방촌 선천군민회 부지 현황 @1961년 폐쇄지적도]
- 우(상) [1950년대 해방촌 모습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서울 3.대한민국수도 서울의 출발(서울특별시,2004), 418p]
- 우(하) [2016년 선천군민회 부지 현황]

편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살아왔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기록과 증언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 기록은 아마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기록 여정은 왜 이곳에 해방촌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를 남겨진 몇몇 단서들을 통해 추정해보는 것, 그것을 위해 흠어진 단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아보는 과정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 3. 해방촌과 피난민 수용소: 공간의 의미와 차이

‘해방촌’과 ‘피난민 수용소’는 모두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인구 이동과 관련이 있지만, 그 형성 배경, 성격,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두 공간을 기록하는 방식과 목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방촌은 1945년 광복 후 해외 귀국 동포, 6.25 전쟁 월남 피난민, 전후 산업화 시대 도시 이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들은 주로 도시 외곽 구릉지, 산비탈, 또는 일제 군사 시설 부지 등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며 판잣집이나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촌은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율적인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 해방촌은 초기 월남민들이 일본군 관사를 점거하며 정착했고, 이후 ‘요꼬’ 공장이 발달하며 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이자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주민들의 자생적인 삶과 공동체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발현된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록가는 공간 그 자체보다 그 공간을 채우고 만들어진 사람들의 서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피난민 수용소는 전쟁, 종교,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이유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게 된 난민들을 임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정부나 국제기구 등 외부 기관의 주도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는 대규모 피난민 발생 시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용소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관리와 통제 하에 운영되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보다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수용소는 본질적으로 난민들이 임시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상황이 안정되거나 다른 정착지가 마련되면 해체되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수용소'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임시적으로 머물렀던 장소의 성격이 강하므로, 기록가는 시설의 설립 배경, 운영 방식, 그리고 열악했던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그 속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보다는 당시의 상황과 제도를 조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 해방촌과 청주의 영운동, 운천동 '수용소 마을'을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서울 용산 해방촌은 피난민들이 스스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발전시킨 '마을'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곳은 1946년경 평안북도 선천 출신 월남민들이 일본 호국신사 주변의 넓은 평지에 집단 이주하여 '선천군민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강력한 지연 공동체를 형성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임시 천막에서 시작해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며, 종교 시설, 복지 시설, 교육 시설 등을 스스로 건립하며 마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신흥시장과 같은 경제 활동의 중심지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요꼬' 공장(니트 스웨터 공장)이 번성하며 전국 유통 물량의 30%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용산 해방촌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 삶의 터전과 생활 기반을 구축하며 발전해 온 '마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반면, 청주 영운동과 운천동은 '피난민 수용소 건물'이 남아 있는 '수용소 마을'로 불리며 그 생성 배경부터 현재의 의미까지 서울 해방촌과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 운천동의 경우,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처음에는 무심천 변의 '동굴'이라 불리는 도랑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1951년경 미군의 도움으로 무심천 건너편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미군이 제공한 자재로 지어진 집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피난민 마을은 한 지붕 아래 여섯 가구가 함께 거주하도록 설계된 장옥 형태의 건물로, 초기 120가구가 입주했습니다. 현재 운천동의 피난민 마을은 서원학원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며, 주민들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밀집된 주택, 여전히 일부 가구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착과 공동체 형성보다는 외부 기관의 지원과 통제 하에 임시적으로 마련된 '수용소'의 성격이 강하며, 그 흔적이 현재까지도 물리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서울 해방촌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서울 용산구 해방촌의 초기 정착민인 선천군민회의 주거 부지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비어 있었지만, 운천동은 초기에 들어왔던 1가구를 제외하고는 '살고자' 들어온 많은 가구들에 의해 여전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곳곳엔 기름 보일러도 보입니다. 가구들은 서로 뺨을 마주하고, 좁은 골목에 앞뒤 간격은 너무 좁아 최소한의 환기를 위한 작은 창, 그마저도 방법창과 사계절 쳐져있는 커튼의 장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여집니다. 여름을 나기 위해 설치한 에어컨은 별

도로 달아매거나,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모든 설비들은 모두 집 밖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성하거나 전무했을 수용소의 얇은 벽과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덧대었고, 새로 엮어진 지붕의 우수받이는 골목길을 항상 축축하게 적십니다. 이렇듯, 용산 해방촌은 마을에 뿌리내린 여러 기반들이 현재의 마을의 모습과 공동체를 만들어 냈고, 청주 운천동의 피난민 수용소는 당시의 임시 주거 공간이라는 특성에, 현재까지도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어 지며 생존을 위한 변용을 거듭하고 있다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4. 또 다른 해방촌을 찾아서: 하동 해방촌에서의 단상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일로든 여가로든 어느 지역을 가든 ‘해방촌’이라는 마을 이정표가 보이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기록 일을 하며 요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상남도 하동에서도 ‘해방촌’이라는 간판이 보여 섬진강에 바로 접한 마을을 일부러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가파른 산 능선에 집들이 점적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폐허가 된 지 적어도 30년은 족히 되었을 법한, 변변찮은 목구조에 흑으로 엮기설기 미장을 한 폐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또한 좀



[청주 운천동 피난민 수용소 2025. 06]

더 ‘멋지게’ 소멸하고 사라지도록 하는 ‘따스한’ 시선과 손길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눈리 속에서 지워지고 소멸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해방촌’의 시간들이 좀 더 정성스레 그 소멸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에필로그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해방촌 출생도, 실향민 가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방촌에 눈길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록은 그곳에 사는 이들에게, 떠난 이들에게, 그리고 해방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제가 서울 해방촌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었고, 곁에 있는 이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주 해방촌을 기록하며 마주한 경험은,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던지는 공통성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동 해방촌 2025. 07]

흔적은 미미했지만, 청주의 작은 해방촌 자취를 기록하려는 청주 기록가들의 시도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물음과 기록가로서의 소명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역사적 장소의 흔적에 있는지, 그 기억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는지, 혹은 여전히 힘겨운 자리에 놓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작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댈 때마다 저는 수잔 손택이 말한 '총과 같은 카메라'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청주의 기록가들 또한 실천적 기록의 필요와 그 한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흔적들이 폐허처럼 남아 있으며, 이웃들조차 무심할지라도, 언젠가 그곳에서 삶을 일구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바로 그 점을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들의 기록 작업에 몇 줄의 목소리를 보태고자 합니다.